



水産海洋과학협회 設立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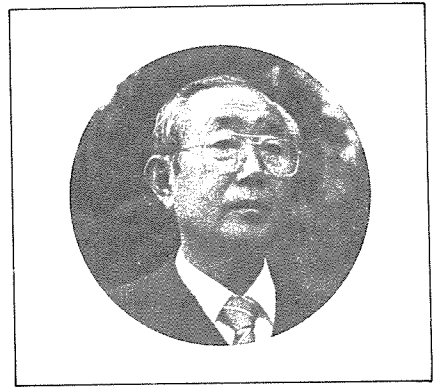
2천년대 海洋科學발전에 一助할터

『지난해는 海洋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개발·보전에 필요한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해양개발기본법」의 立法으로 새로운 해양시대가 전개될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역사적인 南極진출을 통해 미지 세계에 대한 국민의 진출의욕을 함양시킬 수 있었던 해로써 매우 의미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韓國海洋學會 劉光日 회장(한양대 자연과학대 생물학과교수)은 해양개발기본법은 국내외의 새로운 해양질서에 부응하고 남한면적의 5배가 되는 海岸水域과 5대양의 풍부한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적 해양개발의지가 정립된 것으로 해양개발에 관한 기본방침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반가워한다.

또한 西南極 킹조지섬에 건설되는 南極과학기지(世宗基地)가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8번째로 상주기지를 갖게되는데 남극자원 개발연구를 통한 해외자원의 확보는 물론 제반 해양개발연구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해양과학분야는 그동안의 경제성장이나 다른 분야의 발전에 비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지만 80년대 들어서면서 活氣를 띠기 시작, 東南亞圈에서는 日本과 함께 해양과학분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이른 만큼 이제 부터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양개



◇ 劉光日 회장

발에 힘써 나가야겠습니다.』 劉회장은 우리나라는 2천년대 기술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각종 과학기술시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해양과학분야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각종 해양자원개발시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한다.

『해양과학분야는 그 연구범위가 광범위하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장기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냐가 이 분야 발전에 관건이 되지요.』 劉회장은 미·소등 해양선진국과 대규모의 투자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다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해양분야도 급속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해양과학분야는 물리해양·생물해양·지질해양·화학해양등 기본적인 4개분야와 해

양공학의 연구분야가 있으며 그 응용분야 또한 상당히 넓고 세분화 되어있어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루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劉회장은 특히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환경오염은 인간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연안해역의 오염으로 인해 각종 수산자원 보호와 생산증대에도 커다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연안 수산자원조성과 기르는 어업의 육성으로 바다의 목장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도 연안해역을 종합적으로 개발이용 하려는 시책도 연안해역을 해양오염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러한 해양오염은 생물자원의 피해와 생태계의 파괴현상이 일어날 뿐아니라 치명적인 대규모 적조유발로 사회경제적문제까지 발전하게 되므로 오염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韓國海洋學會가 주축이 되어 水産學會등 해양관련 8개학회가 모여 「수산해양과학협회」(가칭)를 설립, 민간기구로 발족시켜 민간차원에서 2천년대를 향한 우리나라 해양과학발전에 一助를 해 나갈 작정이라고 밝힌다.

이와함께 2천년대 해양과학분야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파악, 기여할 수 있는 방안모색도 앞으로 협회에서 할 일이라고 덧붙인다.

『이제부터가 해양과학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1966년 학회 발족당시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해 왔다고는 할 수 있으나 기초기술의 미흡 등으로 기술축적이 안돼있는 상태이므로 2천년대 선진해양한국을 위해서 기반구축이 시급한 과제이지요.』 劉회장은 기초과학 육성으로 기초기술을 축적하지 않고는 2천년대 기

술선진국진입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68년 서울대에 해양학과가 설립된 이래 해마다 10여개 대학에서 4백여명의 해양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는만큼 이들 전문인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 우리의 능력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해양학회에서는 기초해양학연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효율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2천년대 국제간의 해양과학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위한 국제협력기반도 다져나갈 방침이라고 밝힌다.

또한 현재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학회지를 격월간으로 증간하고 海洋用語의 統一化 작업도 수행, 海洋用語集과 海洋生物名集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학회는 특히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UNESCO 프로그램의 하나인 「태평양권해양물리 건설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인데 이 워크숍에는 中共학자를 포함 1백여명의 해양관계 전문가가 참석, 최신연구결과 발표와 최신정보를 교환하게 된다는 것.

『그동안은 인력양성이나 연구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왔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들이 해양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몽적인 역할도 수행해 나갈 작정입니다.』 劉회장은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양개발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 우리나라 해양자원 개발은 물론 해양한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한다.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양개발의 중요성이 국가발전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므로 無限의 寶庫인 해양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2천년대 선진국진입은 물론 해양과학이 찬란하게 꽃필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나가야 하겠습니다.』 (權光仁 記)